

# 변화와 혁신으로 앞서가는 21세기 보건복지정책



| 장관 프로필 |

- 1947년생
- 196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연수과정 13기 수료
  
- 1983년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초대 의장
- 1994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 1995년 민주당 부총재
- 1996년 - 15대(새정치국민회의), 16대(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2003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2004년 17대(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여러 가지 과제가 많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해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 딸에게 미뤄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진정으로 호소해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동안 '국민연금'을 다뤄오면서 연금을 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연금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판도 받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생각입니다.

둘째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현재의 추세를 시급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활력을 잃은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단지 특정 부처의 문제나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몇 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며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 가정에 맡겨진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나눠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며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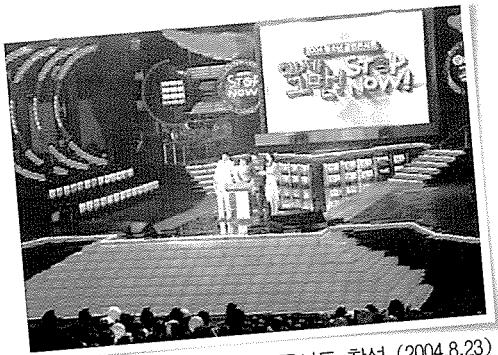
특히 먹거리 문제와 의료 문제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국민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성·건전성,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라는 사회 간접자본이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 ◆ 2005년도 새해의 보건복지 정책의 중점 사항은?

2005년도에는 앞에서 언급한 중점 추진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보,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빈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 빈곤층의 생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해 일부 누락되는 계층이 있고, 차상위 계층과 같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제5회 사회 복지의 날 기념사 발표 (2004.9.8)



▲ 청소년 금연콘서트 참석 (2004.8.23)



▲ 종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2004.12.17)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예방하고, 빈곤이 고착되지 않도록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에 미리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정부적 인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고령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 걸치는 사안이므로 여러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권의 확보 또한 중요하므로 담배가격을 추가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부문을 확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식품과 의약품, 혈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려 합니다. BT산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and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5대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였으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 담배가격 인상으로 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계획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현행 150원에서 354원)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04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확충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10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금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약 10만여 명의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흡연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해서도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재정에서의 국민증진기금의 지원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제고하고 암과 같이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관리,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미래 세대와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과 발전을 위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역사에서 민간단체가 차지해 온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50~60년대 주요 보건의료 문제였던 기생충질환,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퇴치 및 관리, 가족 보건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일선 보건소 등과의 협조 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흡연·폭음·운동 부족·스트레스 등 불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질병 구조가 다양화·만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이 75.1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기관,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들의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랜 기간동안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국민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조직망, 전문인력 등을 고루 갖춘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사회 내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통한 질병 예방과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관리 시스템 정착에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건강증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